

LOCAL

2025년 8월 6일 수요일

여수 도서지역 치안안전 총력
‘범죄예방시스템’ CCTV 설치

여수시는 도서지역의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달부터 남면, 화정면, 삼산면 등 도서지역에서 운영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범죄예방시스템은 CCTV 설치가 어려운 도서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위급상황 시 개인의 스마트폰을 이동형 CCTV처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시스템은 여수시 CCTV통합관제센터와 실시간 연계돼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사용자가 스마트폰 화면에서 ‘영상전송’을 누르면 현장 영상이 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되며, ‘긴급 신고’ 버튼을 누를 경우 관제센터 근무자와 실시간 통화를 통해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 시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에 연계된다.

해당 시스템은 비령길, 탐방로 등 도서지역에 설치된 안내문의 정보 무늬(QR코드)를 스캔하거나 대표전화(1899-1766)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영광, 피스·하모니 콘서트
14일 문화예술의전당서

영광군은 오는 14일 오후 7시 영광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사랑과 평화, 조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피스·하모니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분열과 갈등의 시대 속에서 음악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하는 사회임을 깨닫고, 마음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무대 위에서 펼쳐질 아름다운 음악의 하모니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관객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는 평화의 메시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미로운 음색과 깊은 감성으로 오랜 세월 사랑받아온 임주리, 파워풀한 가창력과 에너지 넘치는 무대로 관객을 압도하는 제갈승, 세련된 음악 스타일로 젊은 세대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재하, 따뜻하고 희망찬 목소리 최연화까지 조화로 무대로 음악이 전하는 진정한 평화와 사랑의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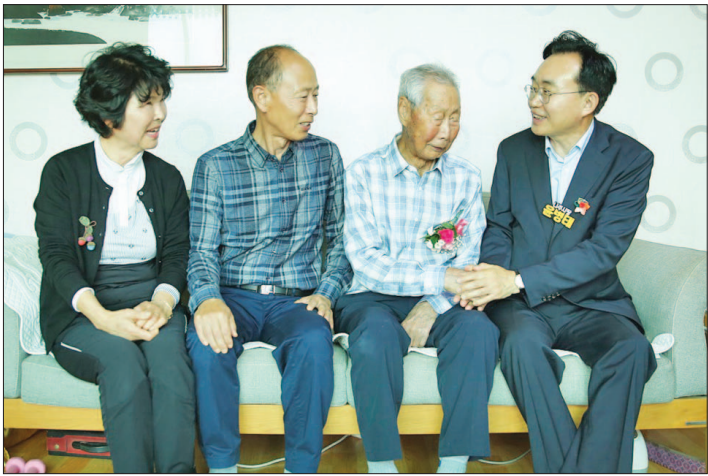
관람료는 전석 1만원(영광군민 3000원, 1인 4대 한정)이며, 입장권은 8월 7일부터 티켓링크를 통해 인터넷 예매를 하거나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안내데스크에서 현장예매가 가능하다. 영광=정규필 기자



윤병태 나주시장이 봉황 새마을부녀회 효사랑 잔치에 참여해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나주시가 치매 환자 사회적 고립 방지와 치매 예방 위해 치매안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이 제53회 어버이날을 기념해 최정수 어르신들 찾아 안부를 살폈다.

모든 세대 골고루 ‘행복한 나주’ 만든다

시, 건강·복지 강화...의료 사각지대 해소 윤병태 시장 “예방·치료·돌봄 등 맞춤형관리”

나주시가 ‘모든 세대가 골고루 행복한 나주’를 목표로 건강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치매안심도시 나주 ‘건강한 100세 시대’ 실현을 위해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에 나서고 있다.

4월부터 6개월간 운영하는 100세 안심경로당은 시가 추진하는 치매 통합돌봄 프로그램으로 180개소의 지정 경로당과 치매 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전문 돌봄 인력을 마을에 파견해 주 1회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 환자 가정에는 월 1회 환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케어를 제공한다.

시는 올해 60세 이상 전 주민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를 확대하고 독거노인과 경로당노년자 등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시에서 운영하는 치매안심학교는 치매 환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치매 예방 및 증상 완화를 위한 시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 특화 사업으로 지난 2월 국립 나주순채원, 동신대 산림조경학과, 작업치료학과와 업무협약을 계기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은열질환 등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무더위쉼터 운영도 강화하고 있다.

시는 9월까지 무더위쉼터 운영기간으로 정하고 지역 내 경로당, 마을회관 등 620개소를 지정해 시민 휴식공간으로 개방하고 있다.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으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확대가 꼽힌다. 고가의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은 본인부담금 3만8000원에 백신 접종이 가능해지면서 의료비 부담 경

감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농촌 여성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특수건강검진과 행복바우처 지원 연령을 기존 75세에서 80세까지 확대하면 시 지원폭을 대폭 늘렸다.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여성농업인을 위해 연 20만원 상당의 바우처 포인트 지급을 통해 영화, 공연, 도서, 체육시설 등 다양한 문화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는 30세 이상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에게 연 1회 5만원 이하 합병증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아이안과, 한가람내과 등 협약 병의원

5곳에서 신장 및 눈 관련 질환,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한 검사를 진행한다.

고혈압 환자는 심전도, 당뇨병 환자는 말초신경 검사가 추가 제공된다.

이 같은 지원은 질환의 ‘조용한 진행’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신청은 보건소 또는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

윤병태 시장은 “어르신들이 나고 자란 마을에서 100세까지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했다”며 “예방부터 치료, 돌봄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촘촘히 지원해 누구나 안심하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나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

함평, 집중호우 피해 복구 총력

이상익 군수 현장 직접 지휘
“빠른 일상 회복에 행정 집중”

함평군이 집중호우에 따라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신속한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다.

5일 군에 따르면 지난 3~4일 함평군 전역에 시간당 최대 122.5mm(평균 83.8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졌다.

군은 지난 3일 오후 5시부터 군민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긴급 가동해 피해 예방에 나섰다.

이상의 군수는 상황 발생 직후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현장을 지휘하며 군 전역의 대처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특히 함평읍, 대동면, 학교면 등 침수 위험 지역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켜 인명 피해를 막았다.

이 군수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함께 피해가 컸던 함평천지전통시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복구를 도왔다.

군은 총 200여명의 공무원에 피해 지역에 긴급 투입했으며, 물차·정소차·덤프트럭·집계 트럭 등 중장비도 동원해 신속히



함평군은 집중호우에 따라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신속한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호우 피해 현장에서 물품을 정리 중인 자원봉사자 모습.

정소 및 토사 제거 작업에 나섰다. 또 수해 후 감염병과 병해충 확산을 막기 위해 집중 방역을 실시했고, 함평소방서도 소방차를 지원해 응급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

군은 피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대민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상의 군수는 “군민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추가 강우에도 대비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윤희 기자 6263739@gwangnam.co.kr

강진, 전국 최초 시행 ‘반값여행’ 경제 효과 입증

전남도 적극행정 ‘최우수’ 수상

강진군은 전국 최초로 시행한 관광정책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이 ‘2025 상반기 전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은 관광객이 강진에서 소비한 금액의 절반(최대 20만원)을 모바일강진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전국 최초의 여행비 지원 정책이다.

숙박, 음식, 체험은 물론, 농특산물, 상업, 서비스업 등 지역 내 대부분 업종에서의 소비가 지원 대상이며,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돼 지역 내 재소비를 유도하고 있다.

군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지역업 폐업 증가라는 위기 속에서 내수 진작과 외부 소비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목표로 지난해 반값여행 정책을 시행했다. 이 정책을 통해 지난해 강진을 찾은 관광객은 전년 대비 43만명 증가한 282만

명, 방문인구는 709만명으로 74만명 이상 증가했다.

또한 반값여행 참여자가 강진에서 소비한 금액과 지원받은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 사용액은 총 69억원으로 지역 내 1800개 업체가 수혜를 입었다.

현재 전국 다수 지자체가 반값여행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소비한 금액의 절반(최대 20만원)을 모바일강진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선제해 특별교부세 3억원을 교부하기도 했다.

군은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강진원 군수는 “반값여행은 단순한 관광지원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고 군민의 소득을 높이는 정책이다”며 “공직자와 군민 모두의 노력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었고, 강진을 전국에 알리는 대표 브랜드이자 군민 모두의 자부심이 됐다”고 말했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2@

www.중앙미용학원.co.kr

취업, 창업, 자격증 합격률 1위

중앙미용직업전문학교 · 중앙미용학원

“미용교육의 선두주자!! 52년 전통 명문 뷰티 전문아카데미”

▼ 고3 미용위탁교육 지금 접수중!

3월 ~ 12월 국가자격증 + 취업실전교육

헤어·피부·네일·메이크업(주요, 재료, 수당) 전액 국비지원

▼ 취업 성공패키지 훈련비·재료100% 무료(1유형 참여자)

·매일 참여 수당 및 취업성공금 수당 지원

·만 18세 이상 실업자 누구나 가능 (단, 위계형선생의 경우 만 15세 이상 가능)

18세이상 실업자·재직자 전과정 전액 국비

·헤어미용국가자격증

·피부미용국가자격증

·네일아트국가자격증

·메이크업국가자격증

·이용사국가자격증

·헤어실전취업(연구)

·남성커트 숙성과정

·피부여성커트취업과정

·네일아트연구취업과정

·피부미용연구취업과정

현재접수중

주·야간 헤어·피부·네일·메이크업·미용사

취업·창업실전교육

미용·이용·기능장

피부포인트어성전문숙성
남성커트숙성교육

인문계 고3예정자 미용100% 지원

훈련비
재료
교육비

디자인·승급·개업·미용실운영 고객실습교육



중앙미용직업전문학교 · 중앙미용학원

동구 금남로 232-4 (금남로 2가, 우리은행 옆)

미용·이용기능장 광주, 전남 지정 교육원
피부포인트교육 / 한국최초 멤버스쿨

접·수·문·의

062) 225-9888